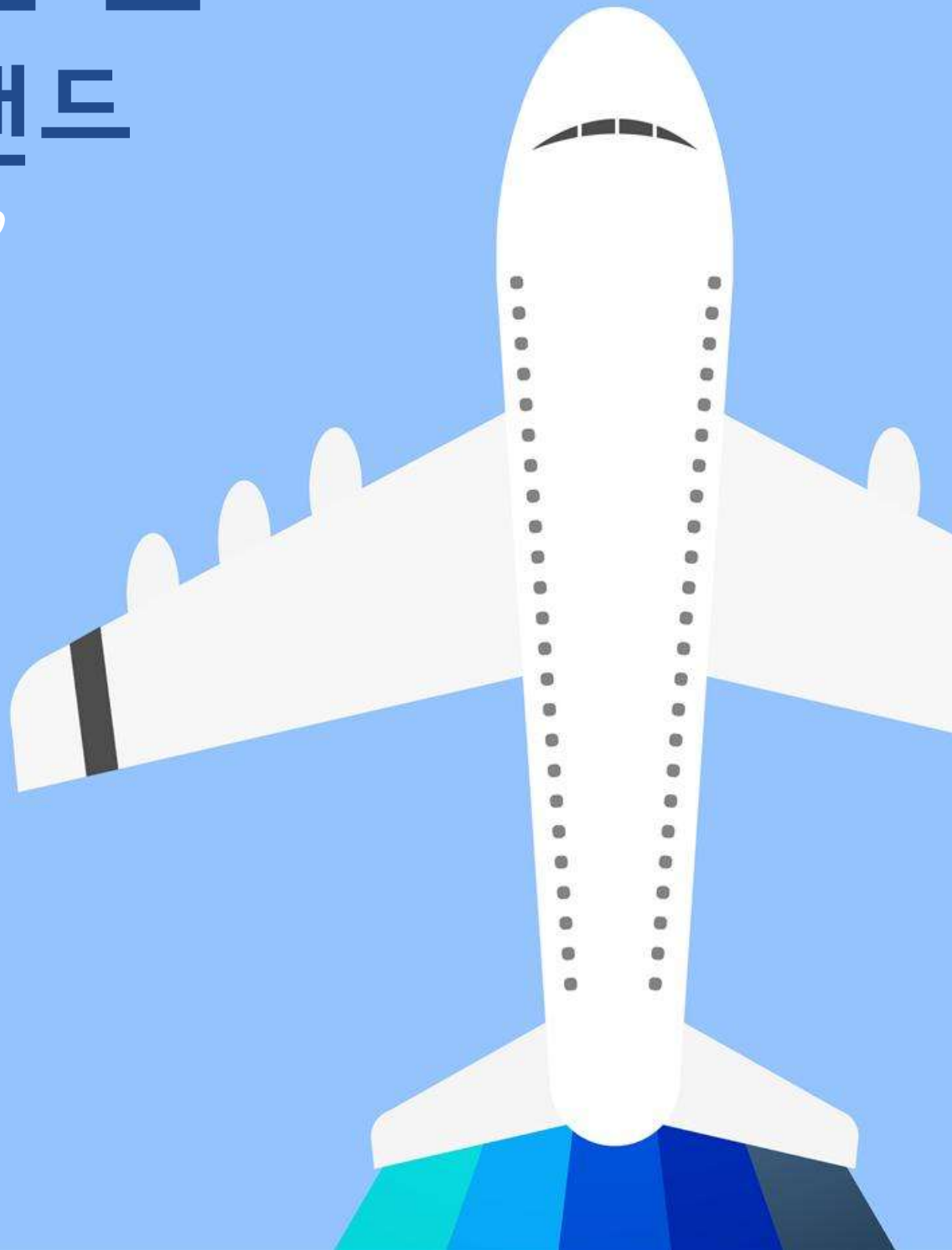


2021 해외출장 가이드

뉴질랜드 오클랜드

AUCKLAND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국가개요	1
II. 뉴질랜드 경제 동향	4
III. 한-뉴 교류 및 협력 관계	11
IV. 체재 안내 정보	13

I. 국가개요

1. 국가 개황

국 가 명	뉴질랜드 (New Zealand)
위 치	남반구 남서 태평양 (호주대륙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0km)
면 적	269,036 km ² (남한의 2.7배)
기 후	온난해양성 기후(12~2월 평균 20~25도, 6~8월 평균 12~16도)
시 차	한국 기준 3시간 빠름 (일광절약제 기간 동안 4시간 빠름) 일광절약제: 9월 마지막주 일요일~4월 첫주 일요일
수 도	웰링턴(Wellington)
인 구	511만명 (2021 통계청 추정치)
주요도시 (인구)	오클랜드 (153만), 웰링턴 (45만, 수도), 크라이스트처치(37만), 해밀턴 (15만)
민 족	유럽인(70%), 마오리(16%), 아시안(15), 태평양 도서국(8%), 기타(3%)
언 어	영어, 마오리어
종 교	기독교(37%), 힌두(2%), 이슬람(1%)기타 여러 종교 및 무교
건 국 일	1840.2.6 (영국 총독과 마오리 대표간 Waitangi 조약 체결)
정부형태	의원 내각제 (3년마다 총선실시)
국가원수	Queen Elizabeth II 영국 여왕
수 상	Jacinda Ardern (노동당, 2017년 10월 취임, 2020 총선 연임)
GDP	US\$ 2,094억 (2020년 추정)
실질경제 성장률	3%(2019) / -2.9%(2020)
1인당GDP	US\$ 44,907 (2019년) / US\$ 44,211 (2020년 추정)
실 업 율	4.34 % (2019년) / 4.9% (2020년 추정)
물가상승률	1.44 % (2019년) / 1.4% (2020년 추정)
화폐 단위	NZ Dollar(NZ\$)
환 율	NZ\$1.64 (US\$ 1 대비)
산업 구조	1차산업 7%, 2차산업 19%, 3차산업 66%, 기타 8%
교역 규모	수출: US\$ 389억 (2020) 수입: US\$ 371억 (2020)
대한 교역 규모	○ (대한수입(2020년)) : US\$ 14.6억 - 주요품목 : 석유제품, 자동차 및 부품, 건설중장비 등 ○ (대한수출(2020년)) : US\$ 11.8억 - 주요품목 : 원목, 낙농품, 육류, 알루미늄 등

2. 뉴질랜드 역사

시기	주요 내용
1642	네덜란드인인 아벨 타스만이 최초로 발견
1769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의 뉴질랜드 측량 및 유럽인 이주 시작
1840.1	William Hobson 초대 총독, Bay of Islands에 정착
1840.2	Hobson 총독과 마오리족 대표 간에 Waitangi 조약 체결
1860-70	토지문제로 인한 마오리족과의 분쟁
1893	여성참정권 세계 최초 인정
1907.9	영국의 자치령(Dominion)
1912	여성 피선거권 부여
1950.6	한국전쟁 참전
1964	월남 파병
1997.7	Mike Moore 전총리 WTO 사무총장 선출
1999.9	제 7차 APEC 정상회의 개최 (오클랜드)
2001.3	북한과 수교
2011.11	국민당 총선 승리 (John Key 총리 연임)
2013.3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
2014.9	국민당 총선 승리 (John Key 총리 3연임)
2015.3	한-뉴 FTA 정식 서명
2016.12	John Key 총리 사임 선언, Bill English 신임 총리 취임
2017.10	노동당 총선 승리, Jacinda Ardern 신임 총리 취임
2020.10	노동당 총선 승리, Jacinda Ardern 신임 총리 연임

3. 뉴질랜드 정치제도

□ 개요

- 정치제도 : 입헌군주국
- 국가원수 : Elizabeth II
- 총독 : Dame Patsy Reddy (임기 5년)
- 총리 : Jacinda Ardern (제40대 총리 취임)
- 의회 : 양원제로 출원하였으나 1951년 이후 단원제로 변경, 임기 3년

□ 주요정당

- 의석 확보 (5) :
Labour Party, National Party, Green Party, ACT, Maori Party
- 의석 미확보 (7) :
Aotearoa Legalise Cannabis Party, New Conservative, Mana Party,
NZ First Party, New Zealand Democratic Party for Social Credit,
New Zealand Outdoors Party, The Opportunities Party (TOP)

□ 총의석수

번호	정당(의석)	로고	당수	참고사항
1	노동당(65) Labour party		Jacinda Ardern	1916년 창당, 현 집권여당. 중도좌파 성향으로 좌파진영 대표
2	국민당(33) National party		Simon Bridges	1909년 창당, 중도우파 성향으로 우파진영 대표. 이민자들에게 친화적임
3	녹색당 (10) Green party		James Shaw, Marama Davidson	1990년 창당, 환경보호 개발반대 등 환경론적 기반. 진보적인 사회 정책 추진
4	마오리당(1) Green party		JohnTamihere	2004년 노동당에서 분리되어 창당 세계개편 추진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조
5	행동당 (10) ACT		David Seymour	1994년 창당, 민생치안, 세계개편 등을 추진하며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증진을 목표

II. 뉴질랜드 경제 동향

1. 주요 경제 지표 및 경제 전망

□ 최근 뉴질랜드 경제동향

- 하반기 델타변이로 인한 경기위축
 - 2021년 8월 델타변이 확산으로 락다운(지역봉쇄)조치 시행,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국경폐쇄 조치 등 하반기 경제적 충격으로 경기 회복세 둔화
 -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경제성장률이 2.8%로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8월 이후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해 가계경제와 기업 활동은 위축
 - 당초 뉴질랜드 중앙준비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 했으나 2021년 8월 0.25%p로 기준금리 동결, 델타변이 확산 우려에 저금리 정책 유지

- 실업률 개선에 대한 기대
 - 재무부에 따르면 실업률은 2021년 말까지 계속 증가해 6.8%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 수치는 작년 총선(2020.10.17.)전 예상한 7.8%보다 낮아진 수치임.
 - 지속적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는 숙박, 접객업과 같은 관광산업 부분의 채용에 영향을 주고 있음.
 - 관련업계 고용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 여성, 현지 태평양계 원주민들에 대한 고용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소비와 기업활동
 -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델타변이 확산으로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한 110 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소 위축된 체감경기를 나타내고 있음.
 - 기업 비즈니스 신뢰도는 델타변이 확산 전인 7월 - 3.8포인트를 기록했으나 락다운 조치가 시행된 8월에는 - 13.4포인트를 기록하며 하락
 - 현지 시중은행인 ANZ에 따르면 9월 들어 오克兰드의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기업 비즈니스 신뢰도도 상승해 - 7 포인트를 기록함.

- 국경폐쇄 당분간 지속
 - 세계적인 델타변이 확산 속에 외국인에 대한 국경통제가 지속되는 상황, 이민자와 관광객의 유입은 당분간 기대 하기 어려운 상황임.

□ 향후 경제 전망

- 델타변이 확산으로 더딘 성장 예상
 - 2021년 8월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락다운 조치 시행과 국경봉쇄 장기화 등은 국내 총생산의 감소와 경기침체로 이어져, 더딘 경기 회복세 전망
 - 경제성장률은 올해 2분기 2.8%로 플러스 전환을 했으나, 8월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오클랜드 락다운 조치는 3분기 성장률을 다시 마이너스로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
 - 시중은행들은 4분기에 접어들면서 경기가 점차 회복되어 V자 형태의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IMF는 뉴질랜드 경제 보고서를 통해 2021년 성장률을 4.0%로 전망
- 백신접종 확대를 통한 규제완화 기대
 - BNZ 등 시중은행은 인구 대다수가 백신접종 완료하는 시점에 거리두기, 국경폐쇄 등 규제완화 가능성 예상
 - 추후 현지 백신접종률과 델타변이 확산세를 감안해 호주와의 타즈만 버블(무격리 여행) 재개와 국경개방을 위한 새로운 정책 등이 기대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내수경기 진작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정부는 락다운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임금 보조금과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안정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적인 충격을 흡수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전국단위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주택 공급불안정을 해소할 정부차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전망

2. 뉴질랜드 교역 현황

□ 뉴질랜드 주요 수출입 대상국

○ 코로나19로 인해 교역량 감소

- '20년 전체 교역액은 760억 미국달러로 '19년 대비 7% 감소
- 한국은 중국, 호주, 미국, 일본에 이어 對 뉴질랜드 수출 5위 교역국
- 상위 10개국에 수출입 교역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액은 108억 미국달러로 전체 뉴질랜드 교역액의 27%를 차지함.

뉴질랜드의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USD 백만, %)

구분	2017년	2018	2019	2020
수출 (증감률)	38,075 (12.79)	39,838 (4.63)	39,553 (-0.99)	38,915 (-1.52)
수입 (증감률)	38,341 (11.43)	41,840 (9.12)	42,051 (1.00)	37,147 (-12.31)
교역량 (증감률)	76,417 (11.59)	81,678 (6.88)	81,604 (-0.99)	76,062 (-7.10)
무역수지	-266	-2,002	-2,498	1,768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국가 (2020년 12월 누적)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출금액	비중
1	중국	10,848	27%
2	호주	5,305	13%
3	미국	4,318	11%
4	일본	2,293	6%
5	대한민국	1,107	3%
6	영국	984	2%
7	대만	849	2%
8	홍콩	772	2%
9	싱가포르	700	2%
10	인도네시아	696	1%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뉴질랜드의 주요 수입국가 (2020년 12월 누적, US\$ 백만)

순위	국가	수입금액	비중
1	중국	8,394	22%
2	호주	4,499	12%
3	미국	3,567	9%
4	일본	2,109	6%
5	대한민국	1,789	5%
6	독일	1,763	4%
7	태국	1,482	4%
8	말레이시아	1,081	3%
9	싱가포르	996	2%
10	아랍에미리트	983	2%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최근 수출입 동향

○ 수출동향

- 2021.7월 기준 총 수출액은 267억 미국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수출액인 227억 미국달러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큰 교역국인 對 중국 수출액은 83억 미국달러로 전년 동기 수출액인 58억 미국달러 대비 43% 증가 했으며, 2위 교역국인 호주의 경우 31억 미국달러로 전년 동기 27억 미국달러 대비 15% 교역량 증가함
- 동기간 주요 수출품목인 유제품(Dairy)은 73억 미국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15% 증가 했으며, 목재수출은 동기간 24억 미국달러를 기록해 15억 미국달러를 수출했던 전년 대비 교역량이 59% 증가함. 주요 수출국인 중국(84%), 한국(41%), 일본(14%), 미국(31%)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수입동향

- 2021.7월 기준 전체 수입액은 249억 미국달러로 전년 수입액인 190억 미국달러 대비 30% 증가했으며,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액도 56억 미국 달러로 41억 미국달러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함.
- 주요 수입 품목인 석유제품의 수입액은 20억 미국달러로 전년 동기 173억 미국 달러 대비 교역액이 19% 증가 했으며, 전기 및 기계 장치 수입액은 58억 미국달러로 전년 동기 45억 미국달러 대비 27% 증가함.

□ 對韓 교역동향

○ ('21년 7월 누적기준) 최근 동향

- 한국의 對 뉴질랜드 수출은 10.7억 미국달러이고 수입은 8.8억 미국달러로 1.9억 미국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하고 있음.
- (수출) 휘발유 및 경유와 같은 정제유의 수출비중이 높으며 꾸준한 인프라 건설수요로 화물 자동차와 건설 중장비 철강관 등도 주요 수출제품임.
- (수입) 뉴질랜드산 원목이 1.5억 미국달러로 중요한 對韓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쇠고기, 치즈, 버터 등 육류 및 낙농품의 수입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6억 미국달러의 교역규모를 유지함.

한국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2020		2020.07(누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463	5.1	1,075	18.3
1	휘발유	242	-10.3	243	89.1
2	경유	239	-12.7	207	39.4
3	승용차	192	-5.9	156	94.4
4	전기자동차	8	-66.3	43	727.9
5	건설중장비	42	-18.6	38	78.0
6	합성수지	38	-14.8	32	47.0
7	화물자동차	15	-43.7	27	267.4
8	축전지	24	8.4	18	21.9
9	도금강판	12	-41.0	17	213.0
10	동조가공품	19	175.1	15	77.9

한국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순위	품목명	2020		2021.07(누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182	-9.1	881	23.6
1	낙농품	230	-0.7	162	3.9
2	원목	199	-14.8	151	30.8
3	알미늄괴및스크랩	127	-16.9	102	79.1
4	과실류	116	20.5	93	23.4
5	가축육류	98	0.6	87	43.3
6	펄프	43	-7.5	31	21.2
7	꿀및로얄제리	46	13.2	27	5.2
8	단백질류	35	34.1	25	21.7
9	유연탄	22	-44.6	22	29.9
10	동물성한약재	31	-4.1	19	2.4

자료원 : 무역협회 수출통계

3. 뉴질랜드 진출 현황

□ 우리기업 투자진출 동향

- 조림사업과 관련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투자 사례
 -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한국에서의 목재투자사업과 달리 별도의 토지구매 없이 벌목권(Cutting Right) 구매를 통해 원목 생산가능
 - 한솔뉴질랜드, 선창산업이 한국기업으로 조림지 투자 사업을 진행 중임
- 청정지역 뉴질랜드 장점을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 투자 사례
 - 청정지역인 뉴질랜드는 1차 산업이 발달해 과일, 채소, 유제품, 육류 등 우수한 품질의 식품원료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나라임.
 - (주)오뚜기는 1995년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식품제조공장 건설을 추진해 오클랜드의 타카니니(Takanini)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고 1997년부터 공장을 가동
 - 라면스프, 사골곰탕, 설렁탕, 꼬리곰탕, 육개장 등에 사용되는 사골 엑기스를 제조해 한국에 공급하고 다양한 소스류도 생산해 현지에도 유통함.

□ 경쟁국 동향 (중국, 일본)

경쟁국 주요기업 뉴질랜드 투자진출 현황

(단위 : NZ\$ 억)

기업	진출현황	투자액
Shanghai Pengxin(중)	뉴질랜드내 12,000ha 규모 낙농장 인수	3
Haier(중)	뉴질랜드 유일의 가전사 Fisher & Paykel 인수	7
Yili Industrial(중)	뉴질랜드 남섬 티마루지역 대형 유제품 공장 설립	4
Fu Wah(중)	오클랜드 Park Hyatt 호텔 신축	2
Asahi(일)	음료제조사 Flavoured Beverages Group 인수	15
	음료제조사 Charles Group 인수	13
Suntory(일)	음료제조사 Danone Holdings 인수	기밀
Japan Post(일)	호주-뉴질랜드 물류기업 Toll Holdings 인수	70
SMA(중)	뉴 최대 육류기업 SilverFernFamrs지분 50% 인수	3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 OECD 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양자 FTA 발효(2008년)
 - 서방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의서에 서명하고 뉴질랜드의 과학기술, 바이오의약, 농업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연구협력을 지원
 - 최근 낙농업, 유제품공장과 같은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와 조림지 조성
 - 농후(Nongfu)사는 베이오브플랜티에 생수공장을 건설함.

- CPTPP를 통한 경제동반자 협정에 참여
 - 뉴질랜드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경제협정 발효로 일본시장개방에 기대감이 큼
 -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스포츠 등 사회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물류 및 대형 식음료업체 인수를 통해 투자 진출함

4. 뉴질랜드 시장 특성

□ 테스트 베드 최적화된 시장

-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시장
 - 196개국의 213개 민족이 사는 다민족 국가, 오클랜드 세계 4위의 다민족도시 선정, 다양한 국가와 민족을 대상으로 시장성 테스트에 유리
 - * 화이자를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뉴질랜드를 Test Bed로 활용하고 있음.
- 영어권 국가, 국제표준 활용
 - 영어권 국가 및 국제표준을 활용하는 점을 활용하여 시장 테스트 및 향후 선진시장 진입하는 교두보로 활용 가능
 - * LG CNS는 웰링턴 시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주하여 해외시장 테스트 및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 말레이시아, 콜롬보 등으로 진출함.

□ 기업 설립 및 운영 친화 정책

- 기업설립 및 운영용이
 - 효율성을 중시한 선진화된 기업 설립 등록 절차 운영
 - 2020년 세계은행에서 선정한 기업하기 쉬운 국가 1위 선정 (2위 싱가포르)
 - 2017년 World Economic Forum에서 선정한 국가경쟁력 13위 기록
 - 2015년 미 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표한 경제자유지수에서 세계 3위 기록
- 기업 친화 정책
 - 28%의 단일 법인세를 부과하며 간편한 세제 기준 갖추
 - 캘러헌이노베이션(Callaghan Innovation) 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지원과 R&D Tax Credit 운영으로, 연구개발에 사용된 자금을 대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III. 뉴질랜드 경제 동향

1. 정치 및 외교 관계

□ 한-뉴 정치·외교 관계

- 1962년 3월 26일 한국-뉴질랜드 간 국교 수립
- 1973년 10월 1일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개설
- 1978년 6월 21일 한국-뉴질랜드 의원 친선 협회 결성
- 1979년 3월 13일 한국-뉴질랜드 경제인 연합회(KNZBC) 결성

주요 정부인사 상호방문 연혁

방 뉴		방 한	
시기	방문자	시기	방문자
1968년 9월	박정희 대통령	1993년 5월	Jim Bolger 총리
1972년 2월	백두진 국회의장	1996년 5월	Jim Bolger 총리
1977년 8월	정일권 국회의장	1999년 7월	Jenny Shipley 총리
1999년 9월	김대중 대통령	2001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00년 3월	박준규 국회의장	2003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2008년 5월	Helen Clark 총리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	2010년 5월	John Key 총리
2014년 2월	강창희 국회의장	2012년 3월	John Key 총리
2018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2013년 7월	John Key 총리
		2015년 3월	John Key 총리

2. 뉴질랜드 내 한국 사회

□ 한국인 이민 사회

- 초기 이민 사회 형성
 - 1960~70년 대 원양어선 선원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이민 시작됨.
 - 1990년 대 초 뉴질랜드의 이민 문호가 개방되면서 한국인 이민자 유입
 - 초기 이민자들은 편의점, 한국 식당, 관광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
 - 현재 약 3만 여명의 교민이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음.
- 한국 이민자의 뉴질랜드 사회 진출
 - 1990년대 초기 이민자들은 편의점, 식당 등 한정된 산업에 종사하였으나 뉴질랜드 교육을 받은 1.5세대 및 2세대 이민자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음.
 - 2014년 한인 최초 여성국회의원으로 멜리사 리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2021년 현재 5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여자골프 선수인 리디아고는 여자골프 세계 1위에 오르는 등 뉴질랜드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대우받고 있음.

□ 뉴질랜드 내 한국기업 진출 현황

- 식품유통 및 생산법인
 - 각종 소스 제품과 마요네즈등을 생산하며 한국으로부터 라면등을 수입유통
 - 뉴질랜드 소고기를 원료로 한 라면스프, 사골육수엑기스 생산
- 수산업 진출 기업
 - 동원수산이 원양어선 사업에 진출해 있음.
 - 수산업 분야 진출은 남섬에 주로 분포해 있으며 현지 회사와 합자하여 공동 운영 또는 운영을 위임하는 형태가 대다수임.
- 서비스업 및 판매 법인
 - 항공 및 금융업에 대한항공과 국민은행이 광고업에 제일기획이 진출
 -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차가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마케팅 활동 중
 - 오스템 임플란트가 치과용 의료기기 판매

IV. 체재 안내 정보

1. 오클랜드 주요 관광 명소

사진	주요 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카이 타워(Sky T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9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스카이 타워는 328m로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임 - 220m높이에 있는 스카이 데크(최고층)전망대는 이음새가 없는 유리창을 통해 360도의 오클랜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전망대에서 번지점프 같은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으며 2개의 레스토랑이 있어 오클랜드 시내 야경과 식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트리 힐(One Tree Hill) / 콘월공원(Cornwall P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트리 힐을 둘러싼 콘월공원은 캠벨 경이 당시 뉴질랜드를 방문한 콘월 공작 부부를 위해 국가에 헌납한 땅으로, 도심지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목가적인 분위기임 - 마운트 이든(해발196m)과 마찬가지로 오클랜드 내에 있는 많은 사화산 중의 하나로 해발 183m의 산꼭대기 전망이 일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클랜드 도메인(Auckland Dom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 동쪽에 있는 오클랜드 도메인은 총넓이 34만 km²의 넓은 공원이며, 도메인 안에는 테니스코트, 럭비, 크리켓 경기장 등이 있으며 푸른 잔디로 덮여 있어 주말에는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기념 박물관(War Memorial Muse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메인 안쪽 높은 곳에 고딕 양식의 중후한 건물로서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박물관임. 1층은 원주민인 마오리, 2층은 자연 과학에 관한 것들을 모아 전시 중이며 3층은 전쟁에 관한 전시관임

2. 뉴질랜드 주요 관광 명소

사진	주요 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카포) 테카포(Tekapo), 푸카키(Pukaki) 호수 - (테카포 호수) 만년설과 호수, 선한목자의 교회로 유명. 호수는 빙하에 깎인 암석이 녹아 청록빛을 띠 - (푸카키 호수) 마운트 쿡의 설경과 하늘빛과 같은 호수빛이 절경을 이루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우포) 호빗 마을(Hobbiton-Matamata) - 호빗 마을은 ‘반지의 제왕’과 ‘호빗’이라는 영화 촬영을 위해 지어진 대규모 세트장임. 원래는 촬영 후에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청원으로 관광지로 바뀜 -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광할 수 없고 오직 가이드 투어만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우포) 와이토모 동굴(Waitomo) - 동굴 아래 냇물이 흐르고 있어 배를 타고 개똥벌레의 일종인 ‘글로우웜(Glow Worm)’을 관광할 수 있음 - 어두컴컴한 곳에 가면 개똥벌레가 마치 밤하늘의 은하계를 보는 것과 같이 촘촘히 빛나 신기함을 더해 준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토루아) 간혈천 테 푸이아(Te puia) - 지열지대와 마오리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 지열지대에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이(최대 30m) 물을 뿜는 간혈천을 볼 수 있으며, 마오리족의 노래와 춤으로 구성된 콘서트를 볼 수 있음

3. 입국 및 체류 시 유의사항

□ 입국 시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영주권/시민권자 제외한 외국인 입국 금지(2021.6 기준)**
 - 영주권/시민권 소지자는 입국 가능하나 2주간의 자가격리조치가 시행중임.
- **비자 관련**
 - 입국 후 출국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
 - 양국 간 무비자 협정으로 3개월 미만 체류 시 무비자 입국 가능
- **ETA 사전신청 제도**
 - 한국과 뉴질랜드간의 3개월 무비자 협정과는 별개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온라인 여행허가 프로그램) 발급이 의무화됨.
 - 한국여권을 가지고 관광이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방문시 사전에 ETA 신청 필요하며 이때 관광세도 함께 납부가 가능함 (ETA 상세링크 아래)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apply-for-a-visa/about-visa/nzeta>
- **입국절차 및 주의사항**
 - 뉴질랜드의 입국심사는 이민심사, 세관신고, 동식물검역의 3단계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며 특히 동식물검역과 관련한 규정이 매우 까다로움.
 - 식품의 경우 세관신고를 하면 검사를 거쳐 반입을 허락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 될 시 벌금이 부과되고 반입도 불허됨.
 - 또한 여권심사의 경우에 있어, 전자여권을 소지한 만 12세 이상인 사람은 e-Gate(자동여권심사)에서 안면인식을 통해 여권심사를 받을 수 있음.
- **반입 제한 물품**
 - 농산물, 육류 반입 시 신고 필수이며 미신고 적발 시 NZ\$ 400 벌금 부과
 - 담배 50개피, 위스키 1.15L 3병, 와인 또는 맥주 4.5L가 반입 허용 한도
 -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입국시 현지 세관의 가이드를 참조

□ 체류 시 숙지 사항

- **교통사고 유의**
 - 뉴질랜드는 한국의 운전방향과 반대이므로 체류 기간 중 운전은 가급적 삼가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함.
 - 도로 횡단, 승하차 시 차량 진행방향이 다르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 인터넷 환경 및 전압
 - 5성급 호텔의 대부분 객실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한국에 비해 다소 느린 인터넷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상업/공공 시설內 무료 와이파이 제공도 드물어 관광객용 SIM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
 - 전압은 230V~240V, 50Hz이며 3 PIN 플러그를 사용하고 있음.

- 환전 및 팁 문화
 - 평일 영업 시간에는 공항, 은행에서 환전 가능
 - 도심 주요지역에는 사설 환전소등이 다수 분포해 있으나 별도 수수료 부과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사전 확인 필수
 - 팁 문화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아 택시, 호텔, 식당에서 팁 지급할 필요 없으나 일부 고급식당에서는 영수증 상 팁 금액을 기재하게끔 유도하는 곳이 있음.

□ 해외피랍 예방요령

- 신변안전 주의사항
 - 낯선 이들에게 자신의 이름, 숙소, 향후일정, 동선 등 여행관련 정보나, 가족관계, 직업 연봉 등 개인정보 유출 금지.
 - 공신력 있는 여행사 현지 잘 아는 사람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것
 - 주변의 사소한 변화를 경계하며 신변 위협 대상을 항상 고려 할 것
 -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거스르지 않아야 하며 눈에 띄는 복장이나 별난 행동은 삼가 할 것
 - 피랍 시 절망하지 않고 구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며 건강을 유지할 것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